

전국 맛집 우리 음식 탐험기...“아는 만큼 맛있다”

한식의 탄생

박정배 지음

삼시세끼, 좋은, 싫든 하루 2~3번의 식사를 피할 수는 없다. 간밤 과음으로 인한 해장 이거나, 허기진 배를 채우는 ‘혼밥’이거나, 긴 출을 서서 군침 도는 맛난 음식을 먹거나 ‘따뜻한 밥 한끼’는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국밥과 곰탕, 짜장면, 삼겹살 등을 먹으면서도 정작 그 음식에 배인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음식평론가이자 여행작가인 박정배 씨가 최근 펴낸 ‘한식의 탄생’은 우리가 밥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우리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는 만큼 맛있는 우리 밥상 탐험기’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된장·고추장, 깍두기부터 부대찌개, 짜장면 등 외국문화의 영향으로 새로 생겨난 음식까지 44가지 음식의 탄생 배경과 이름 유래, 지역별 차이점 등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옛 문헌을 뒤적이고, 전국 각지의 맛집을 찾아 발품을 팔았다.

이 책은 ‘계절의 향기 따라와’와 ‘날마다 기분따라’로 나눠 맛의 기본을 이루는 장과 고추장, 매추, 장아찌를 비롯해 북달임음식, 비빔밥, 상추쌈, 육회, 물회, 미나리강회, 냉면, 추어탕, 돼지국밥, 북어국, 홍어, 과메기 등 우리 음식의 뿌리를 조망했다.



한식은 고추장과 된장을 기본으로 비벼거나, 끓이거나, 고아낸다. 홍어와 명태, 은어, 미꾸라지, 전어 등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주로 사용한다. 햇볕에 메주를 말리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음식은 지역의 기후와 공간에 따라 색 다르게 발달했다. 또 같은 재료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반된 음식문화를 낳는다. 전어의 경우 한국에서는 ‘집나간 머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별미이지만, 일본에서는 전어 굽는 냄새를 시체 태우는 냄새로 연상할 정도로 거의 먹지 않는 생선이다.

삼겹살은 1970년대말 본격적인 외식 메뉴로 등장한 후 IMF를 거치면서 ‘국민 고기’로 등극했다. 삼겹살 단어는 1959년 신문에 첫 등장했는데, 이전에는 ‘세겹살’, ‘삼층제육’으로 불렸다고 한다.

삼겹살은 지방을 만들어내는 사료와 근육을 번갈아 내는 사료를 차례로 먹이는 비육(肥育)기술로 만들어낸다.

저자는 비빔밥을 ‘한국식 패스트푸드’의 전범이라 평가한다. 그는 “밥 위에 올린 채소와 고기는 단백질, 탄수화물,식이섬유가 모인 균형잡힌 식단이고, 다섯 가지 색은 오행을 기반으로 한 동양의 음식철학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향간에 정설처럼 떠도는 음식의 유래도 바로잡았다. 흔히 설명하는 농사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선농단’(先農壇)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일본 언어학자 야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1938년 ‘잡고’라는 책에서 “설령은 잡(糲)이다”라고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령의 어원이 우리의 고유어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굵씹어 봐야 할 말”이라며 “탕이나 곰탕의 음식문화는 고려말 개성에서 몽골 출신의 ‘달단화적’들에 의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매일 같이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많은 음식과 식재료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세종서적·1만4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지루하고도 유쾌한 시간의 철학=독일의 철학자 루디거 자프란스키가 ‘시간’에 대해 자프란스키는 지루함, 새 출발, 근심과 같은 사적인 관점에서부터 사회화, 경제화와 같은 사회적 관점을 지나, 역사인의 수명이나 우주의 시간처럼 걸잡을 수 없이 거시적인 관점까지, 더불어 개인의 신체 리듬, 예술, 종교와 영원 등 다양한 관점을 하나하나 코드로 삼아 시간에 대해 풀어낸다. <은행나무·1만3000원>

▲목적의 힘=인생에서 어떠한 것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행복’의 열쇠가 되는지를 말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인 야망, 통찰력, 관계, 긍정적인 영향을 실패하는 중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나와 더불어 남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과 타인이 모두 행복하게 되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한국경제신문·1만6000원>

▲다음 세기 그루브=서준환의 네번째 소설집. ‘고독 역시 작각일 것이다’ 이후 6년만의 소설집이다. 작가는 편집증을 앓는 안드로이드, 기억상실증에 걸려 떠도는 남자 등을 다룬 수록작을 통해 실재와 상상 사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오가며 현실의 항구성을 벗어 던진 불안정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특히 소설집 화자의 대부분이 타자와의 대화나 아닌 독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두려움 치유=‘두려움’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언제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두려움이 우리의 뇌 안에서 생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몸과 질병을 일으키는지, 두려움이 나쁘지만 한 것인지는, 두려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해, 의사로서의 경험과 개인적 체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산티·2만2000원>

▲윤규영 일기 1996=‘농사짓는 철학자’ 윤규영이 19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6년 동안 쓴 일기 가운데 1996년 일기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윤규영은 일상과 철학, 관념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추구해왔고, 그런 삶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시공간이 농촌이라고 믿었다. 이 일기는 ‘철학’이다. 농촌에서 ‘철학’하되, ‘관계’ 속에서 철학하고 그 사유를 실천으로 이어가는 일에 관한 기록이다. <천년의상상·3만5000원>



두려움이 우리의 뇌 안에서 생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 몸과 질병을 일으키는지, 두려움이 나쁘지만 한 것인지는, 두려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는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해, 의사로서의 경험과 개인적 체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산티·2만2000원>

예술가는 약자들을 위해 잔다르크가 되어야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박종호 지음

“교태와 치장이 예술의 전부가 아니다.” 독일 작가 케테 콜비츠의 말로 시작하는 책은 목직하다.

‘내가 사랑한 클래식’, ‘불멸의 오페라’ 등을 펴낸 박종호 풍월당 대표가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를 펴냈다.

이번 책은 지금까지 그가 내놓았던 책들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예술은 다



만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오페라 아리아와 강렬한 교향곡에 몸을 휘감고 미술과 문화와 영화에 빠져들어 소시민적인 삶을 누렸고, 그것이 복락인 줄 알고 살았다 고 고백했다.

‘부끄럽지만 얼마 전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고 바닥부터 다시 공부

를 했고 과거의 언행과 강의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깨달아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예술은 소외된 자들을,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예술이 우리를 깨우치고 아프게 할 때, 그것은 진짜 예술이다’, ‘약자들을 대신해 외쳐야 하는 게 예술가들이고, 세상의 모든 예술가는 다 잔다르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장애인, 추방자, 유대인, 청년, 자살자, 유태인과 사생아, 성 소수자 등으로 카테고리리를 나눠 주목적인 오페라를 중심으로 음악,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연주되는 슈베르트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의 마지막 곡 ‘거리의 약사’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추운 길에 서서 손뭉침을 묵묵히 연주하는 늙은 약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장애인의 운명은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주인공 콰지모도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주인공 리골레토와 질다의 이야기, 키 134cm 테너 크바스토프의 삶을 통해 들려준다.

또 흑인 등 유색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페라 ‘마술피리’, 조르디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민음사·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파란 도시는 모든 것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도시에 사는 파란 늑대들의 이야기. 파란색 차장에 차를 마시고 파란색 펜을 사용하고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파란 도시에 어느 날 빨간 자전거를 탄 빨간 늑대가 휘파람을 불며 나타난다. 빨간 늑대의 등장으로 파란 도시는 혼란에 휩싸이고 만다. 파란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콜라·1만1000원>

▲데카르트 아저씨네 마을 신문=끊임없는 생각의 힘을 강조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마을 신문 발행인으로 변신해 어린이들의 인문학 멘토가 되었다. 따돌림을 당해 전학을 가게 된 가운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또 따돌림을 당한다. 친구들 탓만 하던 가운이는 데카르트 아저씨를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에밀의 크리스마스 파티=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마지막으로 쓴 에밀 이야기.



에밀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책이다. 에밀 아이기답게 따돌림받고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못 말리는 말쑥구리 기에밀이 누구보다 속이 깊고 기특한 아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논랑·9000원>

▲어쩌다 우리 가족일까? =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겨온 주인공 은솔이가 아빠의 재혼으로 충격을 받고 상심하다가 주변의 다양한 가족 관계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어떤 가정에서 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체가 큰 선물이며,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식구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어린이나무생각·1만18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성한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임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